

초등교육에 있어서 경제교육*

- 영국의 'Micro Society' Program을 중심으로 -

저자 土井 教之 (關西學院大學 教授)

번역 고 광 명 (제주교육대학교 강사)

목 차

- I. 머리말
- II. 경쟁력·혁신과 교육
- III. 'Micro Society' Program의 내용
- IV. 'Micro Society' Program의 평가
- V. 일본의 교육에 대한 시사점
- VI. 경제교육과 기업가활동

I. 머리말

일본 경제는 급속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스위스·국제경영연구소(IMD)에 따르면 일본의 총체적 경쟁력(종합평가)은 세계에서 20위 이하로 떨어져 2001년에는 26위가 되었으며, 또한 경제평가(경제성과) 부문만 보더라도 1997년 5위에서 2001년

* 본고는 일본의 お茶の水書房에서 발행하는 경영학 관련 서적인 『ベンチャービジネスと企業家教育』(土井教之·西田 稔 編著, 2002, 275~295)에 실린 土井教之(初等教育における経済教育—英國「マイクロ・ソサエティ」プログラムを中心として)의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에는 16위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정체는 정치·경제·사회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각 단계에서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학급붕괴·학력붕괴, 교사 지도력의 결여, 문제교사의 증가, 학교 간 격차의 확대, 고교생의 퇴학증가 등이 사회 이슈가 되고, 대학(또는 대학원)에서도 학생(신입생, 재학생 등)의 학력부족, 연구능력의 저하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각 단계에서의 교육개혁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의무교육에 있어서 새롭게 개혁해야 할 내용으로 경제교육 내지 기업가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프로그램을 다루고자 한다. 일본에서도 경제에 관한 교육('경제교육', '오카네(おかね)교육', '금융교육' 등이라 부르고 있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몇 학교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소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메커니즘의 이해를 강조하면서도 투자게임(주식매매게임)의 학습에 기울어지게 되면서, 그 결과 경제메커니즘의 적절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잘못된 교육은 시대흐름에 따라 첨단적 내용을 중시하게 될 경우도 있지만, 그 폐해는 자명할 것이다. 이리하여 경제교육의 의의, 진행과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새삼 통감하게 되었다.

영국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경제교육·기업가교육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여, 다양한 경제교육프로그램을 학습·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경제교육에 있어

- 1) IMD(2001)에 의하면 일본의 종합평가는 1997년 17위, 98년 20위, 99년 24위, 2000년 24위, 2001년 26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종합평가는 경제성과, 정부효율, 기업효율,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 세계 순위의 추이는 아래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본고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항목과 그에 따른 2001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기업 49위, 경영자의 기업가정신 49위, 정부의 경제정책 48위, 대학교육 49위, 국민의 유연성·적응성 48위 등이다(Fraser, 2001, Financial Times, March 22, p.6 참조).

일본의 경쟁력 순위의 변천

	1997	1998	1999	2000	2001
종합평가	17	20	24	24	26
경제성과	5	5	13	17	16
정부효율	27	33	29	28	29
기업효율	23	29	32	26	30
인프라	14	17	14	15	19

자료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2001),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pp.210-211.

서 일본보다는 발전된 영국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마이크로 소사이어티(Micro Society)'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일본에의 함축성(implication)을 고찰하고 한다. 특히 경쟁원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일본 교육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경쟁력 · 혁신과 교육

미국의 2001년 『대통령경제백서』(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01년 1월)는 우리에게 교육과 관련하여 시사할 점이 많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뉴 에코노미(New Economy)에 의해 호전된 미국경제를 탄생시킨 주요 요인으로 교육을 들고 있다. 예전부터 미국이 경제정체에 고민하고 있을 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책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여길지 모른다.²⁾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일본의 상황을 본다면 일본이 미국 혹은 외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이에 폭넓은 경쟁력 · 혁신과 교육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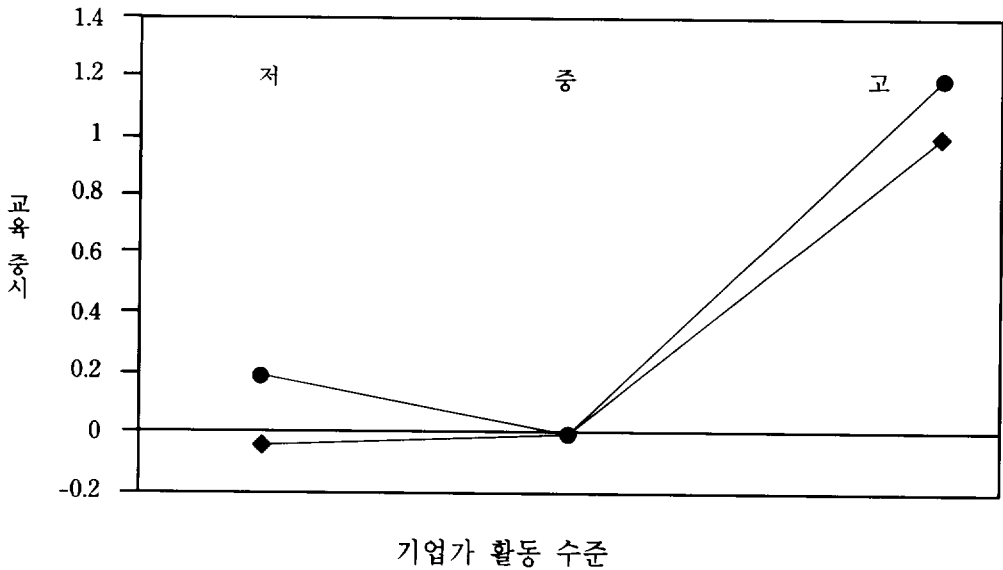
1. 교육과 기업(起業)-국제비교연구에서

어느 국제공동연구(GEM, 1999)가 국가경쟁력, 기업 등에 대한 국제비교를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독일, 이탈리아, 영국, 덴마크, 프랑스, 일본, 필란드 등 선진 1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앞의 3개국을 기업가 활동 수준이 높은 국가, 뒤의 4개국을 낮은 국가, 그리고 남은 3개국을 중간 국가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의 비교로부터 2가지의 점을 지적하고 있다(GEM, 1999). 즉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① 벤처기업에 의한 신규진입의 활발한 국가일수록 기업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생각되는 국가일수록 기업가활동이 왕성하다. ②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이 중요시되고 있는 국가일수록 기업가활동이 왕성하다. 그런 의미에

2) 2002년 2월에 공포된 『대통령경제백서』는 미국의 초·중등교육의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경쟁원리(교육 시장)를 강조하고 있다.

서 기업가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전자에 주목되면서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림 1〉 기업가 활동의 수준과 교육의 중시



주 : ●은 교육관련 질문항목에 대한 회답을 지수화한 것으로써 그 대표적인 질문으로 '일본의 초·중등교육에 있어서의 수업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은 대학교육의 중시를 지수화한 것이다.

자료 : Reynolds, P.D., et al., 1999,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1999 Executive Report*, Babson College et al., p.28, Figure 13.

이상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선 아동·학생은 교육에 의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몸에 지니고 또한 직업·경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됨으로써 기업가 활동에 불가결한 자립심, 독립심을 키운다. 다음으로 그들은 교육에 의해 시야를 넓히고 기회를 인식하는 능력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교육투자는 지적아이디어, 지식, 정보, 발명,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등의 형태에서 사회적 자산베이스를 만들어낸다. 또한 교육은 말할 필요 없이 유능한 종업원, 전문적인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만들어낸다.

이리하여 교육은 경제활동의 중요한 인프라(infra)를 형성한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에서는 '기회의 인식(인지)과 추구'라고 하는 정신풍토를 함양하기 위해 교육, 특히

경제교육(기업가교육)에 중점이 놓여져 왔던 것이다. 예전부터 캐나다, 이스라엘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적이 있었다.

따라서 교육은 초·중등교육이든 고등교육이든 간에 기업가활동, 나아가 경쟁력, 혁신 그리고 사회발전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경제교육과 초등교육

교육이란 사회 속에서 주체의 행동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사회에서는 일정한 룰(rule) 하에서의 주체적 행동이 요구된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경제행위가 사회적 룰(rule)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본은 '번영'을 요구하는 미국과는 다른 '사회적 공평성'이 중요시되는 사회이다. 그래서 교육관계자가 시장경제를 가르친다는 것은 '손실과 이익에 따른 판단', '돈벌이', '우승열패', '경쟁'을 교육하는 것이고, '사회적 공평성'이란 잘 융합되지 않는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써,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들을 '기피'하여 왔다고 생각된다.³⁾ 그러나 경제활동은 사회적 룰, 주체적 프레임 워크(framework) 속에서 영위되는 것이지만, 경제교육은 오히려 사회성, 주체성, 공평성을 적극적으로 함양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경제교육은 경제시스템을 교육하는 적절한 교재·교수법, 그리고 학교와 비즈니스와의 연대(통상, '학교비즈니스연대<school-business link>'라고 부르고 있음)에 의해 촉진될 것이다. 그 중 하나인 영국의 'Micro Society' 프로그램 고찰을 통하여 경제교육의 진행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3) 일본의 초등학교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상황'을 가끔 목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어콩쿠르(concours)대회에서 입선한 어린이들을 학급별로 발표·표창하지 않고 남모르게 교장실에 불러 표창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교정의 복도 게시판에 표창된 취지가 조용히 게시된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어린이들을 표창하는 미국의 초등학교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결국 일본의 실제적 상황을 보면 교육에서 경쟁원리 도입은 교사 측의 입장에서 경쟁적 지도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사 측이 후자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Micro Society' Program의 내용

기업가활동이 왕성한 국가에서는 기업가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경제발전·사회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기업가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DTI, 1998 ; GEM, 1999, 2000 ; GEM UK, 2000). 예를 들면 GEM(2000)에서는 영국의 기업가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1순위로 교육·훈련, 2순위로 문화적·사회적 규범, 3순위로 정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토니 블레어(Tony Blair) 노동당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영국은 일찍이 기업가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경제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다. 그 하나가 'Micro Society'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인 과거 15년 이상에 걸쳐 8~12세의 아동에 적용되어 왔던 '미니·소사이어티(Mini Society)' 프로그램⁴⁾(예를 들면 Kourilsky and Carlson, 1996 참조)를 영국의 학교교재용으로 정리(arrange)한 것이다. 영국의 프로그램은 4, 5, 6, 7, 8세(Key Stage 2)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영국의 '경쟁력(competitiveness)' 정책 중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부문이다. 그것은 나중에 언급하는 『1998년 경쟁력백서』(DTI, 1998)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Micro Society' 프로그램은 머튼·비즈니스교육파트너십(Merton Education Business Partnership(MEBP))에 의해 작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Micro Society' 프로그램에 있어서 미국의 프로그램이 영국의 제도, 사회풍토, 문화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주목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오리지널·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영국의 그런 형태가 많은 흥미를 가져다준다.

1. 프로그램의 목표와 개요

4) 카프만기업가리더십센터(Kau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의 Doug Miller는 미국의 'Mini Society'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기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수법(teaching strategy)의 하나로써 이루어진 커리큘럼이 아닌 것이다. 즉 그것은 자신의 교육철학과 프로그램 특성을 살리고 새로운 교육스타일을 의도한 것으로써 이들로부터 다양한 사고방식을 배우게 한 것이다. 또한 교사는 기업가 정신, 경제학, 정부, 사회과학, 기초수학, 언어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2002년 2월 18일자 메일).

이 프로그램은 12주 동안(24 학점)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교실 내에서 학생들에 의해 '마이크로 사회(Micro Society)'를 만들고, 그 사회를 통해 필요로 하는 제도·조직, 구체적으로는 정부, 행정, 기업, 법 시스템, 경제 등을 설정하게 된다.⁵⁾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처럼 어린이들이 사회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때 말할 나위도 없이 학생은 '자원의 희소성'을 느끼고, 그리고 '혹성(justenuf)'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써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 혹성의 전지전능의 컴퓨터가 꺼졌을 때 주민은 편리한 생활이 끝나게 되지만, 그 혹성(지금은 Notenuf라고 부름)은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경제메커니즘 학습이 비로소 시작되게 된다. 즉 자원의 희소성에서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 비즈니스 플랜이 수립되고 통화(화폐)가 만들어 지면 거래가 시작된다. 이때 학교 외부에서 재원연설자(지역의 은행매니저, 인사담당매니저, 세무조사관, 정치가 등)가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초대되고, 어린이들은 그들로부터 사회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각자가 결정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Micro Society'가 좋은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어린이들은 이윤과 손실, 수요와 공급, 인플레이와 디플레이, 세금 등과 같은 개념을 학습하게 된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과의 연결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일환으로서 의회, 관청 등에서의 방문을 포함한 '교외학습('out of classroom' learning)'의 기회도 많이 주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학습상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즉 어린이들이

- ① 경제가 기능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안다.
- ② 기본적인 경제개념에 친숙해진다.
- ③ 의회제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을 학습한다.
- ④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기본적인 단계를 학습한다.
- ⑤ 그룹에서 협동심을 키우고, 그리고 학교 외부로부터 온 방문자와의 토론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문제해결, 교섭, 의사결정 등의 '사회적 기술(skill)'을 향상시킨다.

5) 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MEBP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커뮤니케이션(국어), 수의 응용(산수·수학), 타인과의 협력, 문제해결 등 4가지의 주요 기술이 중요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기술은 고교, 대학 등의 고등교육 단계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단계에서 그 기술의 개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초등교육단계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가 정한 내셔널 커리큘럼(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 상응함)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많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다. 특히 학습의 '주요 단계 2' 프로그램, '영어, 말하기, 듣기, 읽기'의 영역을 커버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내셔널 커리큘럼의 '시티즌십(citizenship)' 조항- '시민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려고 준비하는'-과도 관련하여, '시티즌십 관련 프로젝트' (Davies, 2002)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프로그램은 코아·커리큘럼(core curriculum)을 기초로 삼은 '크로스·커리큘럼(cross curriculum)' 형을 말하는 것이다(커리큘럼문제에 대해서는 OECD, 1998 참조).

2. 교사의 연수

어린이들의 주체적인 학습과 더불어 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이며 이를 위한 교사의 능력·해결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학교 교사는 2일간의 연수(MEBP가 주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연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① 'Micro Society' 와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한다.
- ② 경제개념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한층 높이고 어린이들과의 토론을 진행한다.
- ③ 시뮬레이션 및 그 외의 적극적, 실험적인 학습방법을 훈련한다.
- ④ 경제계로부터 연설자를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토론한다.

이 연수에 참가한 교사에게는 교사용 교재, 'Micro Society Resource Pack' 이 배포된다. 그것은 주별 단원으로 구성되어 각 단원은 두 학기(session)로 나뉘어 지고, 또한 공통의 형태(format)를 갖는다. 그 형태는 ① 경제개념 혹은 시티즌십(Citizenship) 측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Background Information), ② 상정된 결과

(Outcomes from the Week), ③ 경제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가상의 흑성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tale, 예를 들면 제1주(회소성)에서는 Justenuf, 제2주(통화)에서는 Notenuf), ④ 교사의 지도순서와 어린이들에게 주는 질문을 나타낸 활동범위의 지시(Suggested Activities : Session 1, Session 2)로 이루어진다(〈표 1〉 참조). 또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 수업에 참관할 기회도 주어져 있다.

이 연수를 통하여 교사 자신도 경제시스템을 이해하고 수업방법을 공부하게 된다. 그러나 2일간으로 어느 정도 이해력이 향상되었는지가 하나의 관건이다. 여기에서 교사의 이해 정도가 주목된다.

〈표 1〉 교원지도 매뉴얼의 개요(1주간)

-
- (1) 기본적 정보(Background Information)
 - (2) 상정된 결과(Outcomes from the Week)
 - (3) 경제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가상의 흑성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Tale)
 - (4) 교사의 지도순서와 어린이들에게 주는 질문을 나타낸 활동범위의 제시 (Suggested Activities)
 - 1학기(Session 1)
 - 2학기(Session 2)
-

자료 : Merton Education Business Partnership(MEBP)으로부터 제공된 자료.

3. 'Micro Society'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평가

학생은 이 프로그램 수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 그것을 예를 들어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Micro Society' 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 ② 어느 부분이 가장 흥미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③ 재미없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 ④ 왜 우리들이 'Micro Society' 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⑤ 당신이 이해할 수 없으면 다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 ⑥ 당신은 'Micro Society'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었습니까?
- ⑦ 누가 'Micro Society'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왜?
- ⑧ 당신은 성공하였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혹은 왜 그러지 못했습니까?
- ⑨ 당신이 가장 성공하였다고 여기십니까?
- ⑩ 당신은 어떠한 실수를 했습니까?
- ⑪ 인사매니저, 은행원, 세무조사관, 정치가들로부터 각각 무엇을 배웠습니까?
- ⑫ 회소성, 세금, 정부, 시민서비스, 비즈니스 플랜, 회계 등은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 ⑬ 앞에서 논술한 것 이외에 당신이 'Micro Society'로부터 배운 것을 최소 5개 정도를 이야기 해보세요.
- ⑭ 우리들이 다시 'Micro Society'를 실시한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변화시키겠습니까?
 - a) 당신이 수행한 것에 대해서
 - b) 당신의 Class Society에 대해서
 - c) 당신의 일 혹은 회사에 대해서

이상이 어린이들에게 던져진 질문의 예이다. 이러한 질문(Micro Society Review)을 통하여 피드백(feedback)이 이루어진다. 어린이들 자신의 평가(MEBP로부터 제공된 오리지널 카피)로부터 어린이들이 느낀 좋은 점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는 어린이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경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초등학생 자신이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능력·관습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젊은 기업가정신(young entrepreneurship)'을 하나의 목표로 삼지만, 어린이들은 다양한 문제가 파생되는 상황에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여 간다. 이는 '경제적인 사고'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어린이들은 '타인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운다', '돈은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다', '돈이 전부 아니라는 것을 배운다' 등의 평가를 한다. 이것들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이 사회성, 협조성, 주체성, 공평

성 등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교육은 '풍부하고 공평한 사회를 요구하거나, 공존을 요구하는 어린이들'을 육성하게 된다.

IV. 'Micro Society' Program의 평가

'Micro Society' 프로그램은 '현실의 세계를 조금 작게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어른의 생활을 빠른 단계에서 체험시키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이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표적인 의견의 하나인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느 은행매니저의 평가내용(通商産業省의 『1998년 경쟁력백서』)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은행매니저는 'Micro Society'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이 묻는 질문은 매우 이해하기 힘들고 예민한 것으로 이미 그들은 내가 이야기한 것을 그들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용시키려는 느낌이 들었다. 'Micro Society'는 경제개념을 어린이들에게 어렸을 때에 학습시킨다는 우수한 프로그램으로서 그 자체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보다 나은 지원과 이용할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DTL, 1998).

이렇게 하여 MERP(2001)는 " 'Micro Society' 프로그램은 시티즌십, 경제개념, 사회에서 경제그룹 간의 상호의존성을 배우는데 유효하고, 게다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실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어린이들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영국은 토니 블레어(Tony Blair)총리를 중심으로 혁신, 경쟁, 소비자의 이익우선, 경쟁력 등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정책의 하나가 '교육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이며,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하나가 'Micro Society'이다. 최근의 조사에서도 교육·훈련이 경제·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GEM, 2000).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영국에서는 사회의 변화와 교육개혁·학교개혁이 연동하여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의 유연성·제도의 유연성도 주목된다.

V. 일본의 교육에 대한 시사점 - 영국의 경험을 통한 학습

이러한 'Micro Society'에 의한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사회'를 '체험' (현실의 사회가 아니므로 엄밀히 말해 '체험'이 아님)시키고 학습을 진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체험교육'이라 부르고 있음). 특히 일본의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의미에서 '사회와의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Micro Society 프로그램이 주목된다.⁶⁾ 이 프로그램은 학습의 사회적성, 교육·학교의 사회적성이 희박한 일본의 교육에 무언가의 시사점을 부여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영국에서는 각 학교가 프로그램 도입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셔널 커리큘럼(national curriculum)의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학교, 교사의 재량을 통한 학습의 여지가 크다. 그런 학습의 하나가 'Micro Society'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이다. 게다가 그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것이 아닌 독립적인 조직프로그램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내셔널 커리큘럼과 독립적인 프로그램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여기에서 영국의 교육시스템 특징의 하나를 엿볼 수 있다.

영국과 일본은 제도,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영국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곤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일본 교육에의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경제교육의 중요성 - 체험교육의 권장

영국에서는 초등학교 단계, 더욱이 저학년 단계에서 '경제를 보는 방법'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린이들은 다양한 모델을 통해 접촉한 경제에 관한 정보·지식을 교실, 집 등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이 단계에서 얻어진 가치관, 사고방식은 그 후 성장에 필요로 하는 '사고의 유연성·다양성'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른 혹은 교사측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경제에 관심을 갖는 어린이들에게 경제메커니즘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교육은 경제메커니즘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6) 일본의 초등학교는 사회복지협의회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학교구역 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만 그보다도 폭넓은 사회와의 연결은 많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제 문제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국에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Davies(2002)는 일반적으로 경제교육·기업가교육을 ① '일'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work), ② '일'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work), ③ '일'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work) 등의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즉 어린이들에게 경제가 '기능'하는 메커니즘, 기업조직이 '기능'하는 메커니즘을 학습시키고, 그 메커니즘 하에서 스스로 그들 장래의 '경력·직업선택'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러한 학습기회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사고방식과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얻게 된다. 본고에서 언급한 체감교육형프로그램인 'Micro Society'는 당연히 이러한 3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 표현한 것처럼 일본의 경제적 정체가 기업가활동의 저조한 것에 기인했다고 하지만, 주요한 원인으로 교육과 문화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공동연구팀인 GEM은 '일본의 교육은 주로 큰 조직에 취직하도록 학생에게 준비시키는 과정으로서 그 메커니즘 하에서 창조성 혹은 개성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GEM, 2001)라고 결론짓고 또한 그러한 교육풍토를 양성하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일본 문화는 일반적으로 기업가활동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GEM, 2000)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경제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학교, 특히 초·중등교육의 단계에서 장래의 기업가를 육성하는 '기업가정신 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 등은 다음 기회에 다루고자 한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 수, 교과서 내용 등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실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가르치는 입장(교육행정당국, 교사)에 그러한 큰 원인이 있다. 가르치는 측이 ① 경쟁의 교육(경쟁메커니즘에 대한 학습)과 ② 교육의 경쟁(경쟁적인 학습평가·지도평가)의 모두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시장경쟁메커니즘의 근간을 이루는 경쟁은 인간성을 왜곡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면서, 그리고 교사 간, 학교 간, 지역간 격차를 유인하는 수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고교의 '수험 경쟁'을 중시하는 부모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지 모른다.

7) 일본의 교육에 대해서는 飯尾(1985), 谷川(1997), 竹内 외(1978) 등을 참조, 특히 谷川 외(1997)는 문제점의 본질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 경쟁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고가 다시 요구되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에게는 다양한 능력·성격을 지니고 그것을 통해 각각의 성과로 나타내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쟁은 단편적이지만 그 선상에 이르지 못한 자를 부당한 경쟁의 패자로 여기지 말고, 이를 위해 그 사람이 지닌 다른 능력·성격을 찾아내어 그것을 살려나가는 사고·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공정하고 자유스러운 경쟁은 어린이들의 다양한 능력을 찾아내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오히려 부정해야 할 것은 왜곡된 '일본형 경쟁'이지 '공정하고 자유스러운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험은 기업가정신 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 혹은 폭넓은 경제교육이 경제메커니즘의 이해에 효과적이면서도 인간성의 함양에도 유용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활동이 시장적 조정과 관리적 조정(비시장적 조정) 등 두 가지의 조정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가르칠 뿐이지만, 위에서 시사한 것처럼 어린이들은 그런 과정에서 공정하게 즐기는 편이다. 더불어 한편에서는 공정함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인가를 사전에 배우게 된다.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경쟁정책, 소비자 보호정책 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다. 그런 의미에서 단지 비즈니스 교육이 아닌 어디까지나 경제메커니즘 교육인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무교육단계에서는 이런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오해를 가급적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

2. 경제교육과 교사의 이해·연수

무엇보다도 교사 자신이 경제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화로 인해 동태적인 경제가 진행되는 현재 그 중요성·필요성은 매우 크다. 지금까지 일본의 교원양성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교사의 경제·경영 등의 기초지식, 체험이 충분하지 않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교사의 이해·연수를 도모하는 기회·제도가 충분히 정비·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교사가 기업에 파견되어 비즈니스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적절하고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그런 체험을 수업으로 연결시켜 살리고자 하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이다. 또한 그

파견되는 곳에 대학도 포함시키고 교사가 학생으로서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 길이다. 대학도 그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사가 대학의 경제·경영관련 학부 혹은 대학원에서 강의를 받고 연구하는 연수제도가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청강생제도 혹은 사회인대학원(예를 들면 관서학원대학에서는 경제학연구과 에코노미스트·코스, 상학연구과 매니지먼트·코스 등)을 이용하여 지식을 쌓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한 연수를 촉진하는 연수휴가(sabbatical)제도, 근무시간의 탄력화, 복수담임제, 교육연수 급부금 등 제도의 정비·충실도 필요할지 모른다.

최근에 들어 문부과학성은 '유도리(ゆとり)교육' 권장(모든 학교 주 5일제, '종합적 학습의 시간', 2002년도부터 실시)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고 있다. 정말로 '유도리 교육'이란 아동의 학력저하로 이어지는 수업시간 수의 감소, 숙제의 감소 등이 아닌 어린이들에게 착실히 공부시키고, 확실한 학습능력을 몸에 익혀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경직된 지도 매뉴얼에 얽매이지 않는 교사의 '여유'를 요구한 것이다.⁸⁾ 일반적으로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성과를 유인하지만 이와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교육에도 적용가능하다. 예를 들면, 교사의 수업능력 다듬기(brush up), 수업내용의 학습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교사의 '여유'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한 여유는 필연적으로 교사 간에 '훌륭한 수업을 하는 경쟁'을 유인하게 된다. 교육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여유 속에서 적절한 경제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경제학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사회적 욕구(society needs)에 대응한 교육서비스가 경쟁을 통하여 새로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그러한 의미의 여유를 부여하는 제도적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3. 교재개발과 교과연대·지역연대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경제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이다. 각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8) 지금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개혁에 주목할 만하다. 대학도 경제교육의 진행방법을 중요한 연구 분야로서 인식하고 있다. 영국의 선도대학(reading university)의 하나인 Warwick University에 '교육·산업센터'(Centre for Education and Industry)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특히 학교교육에 있어서 경제교육·기업가교육의 현상·진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Davies(2002), CEI(2001) 등의 조사가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영국의 교육개혁의 열의를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그것들은 아마도 각국 고유의 문화, 제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⁹⁾ 사실 영국의 'Micro Society' 프로그램도 처음에 지적인 것처럼 미국의 프로그램을 기초로 삼고는 있지만, 영국의 초등학생에게 알맞게 조정(arrange)되었던 프로그램이다.¹⁰⁾ 하나의 '사회'를 상징하는 이상 현실의 사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미의 경제교육은 다른 교과와 밀접하게 연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하여 국어(영어), 산수, 수학력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학습되어지고 있다. 만약 경제교육이 교과의 연장 내지 다른 교과와 연대하여 이루어진다면 그 교육적 효과는 크게 손상되어질 것이다. 상기의 '종합적 학습의 시간'을 '이용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기업가교육센터, 2000)고 여겨지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종합적 학습의 시간'을 교과의 연장으로 위치를 부여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¹¹⁾ 교재개발도 이러한 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리하여 일본에 적합하고 게다가 다른 교과와의 효율적인 연결을 의식한 교재를 개발하여 갈 필요가 있다. 그때 해당지역 초·중등교육의 교사, 대학, 산업계 등과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그 외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大江·杉山(1999), 기업가교육센터(2000) 등을 참조, 또는 초등교육지향의 경제교육용교재가 근래 많이 출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마가렛·폴(吉井佳代子譯)『お金のことがわかる本』(全4巻, 文溪出版, 2001年), こどもくらぶ編著『お金について考える』(全4巻, 鈴木出版, 2001年) 등을 들 수 있다.

兵庫廳이 실시하고 있는 중학생의 「トライやる・ウィーク」프로그램은 경제교육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羽瀧(2001) 참조. 또한 고교단계에 대해서는 경제교육연구회(1997)를 참조.

10) 예를 들면 Davison는 '영국의 프로젝트는 미국의 프로그램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지만 미국의 교재가 영국의 학교에서는 효율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 영국의 커리큘럼 요건이 상당히 다르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2002년 1월 29일자 메일). 또한 Doug Miller는 일본과 관련하여 '미국판의 Mini-Society 프로그램에 대해 일본에서 교육자, 실업가 등과 논의했지만 그 프로그램은 능력주의에 큰 중점이 놓여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도입은 곤란하다고 알려지면서 또는 그것에 흥미를 가진 단체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2002년 2월 18일자 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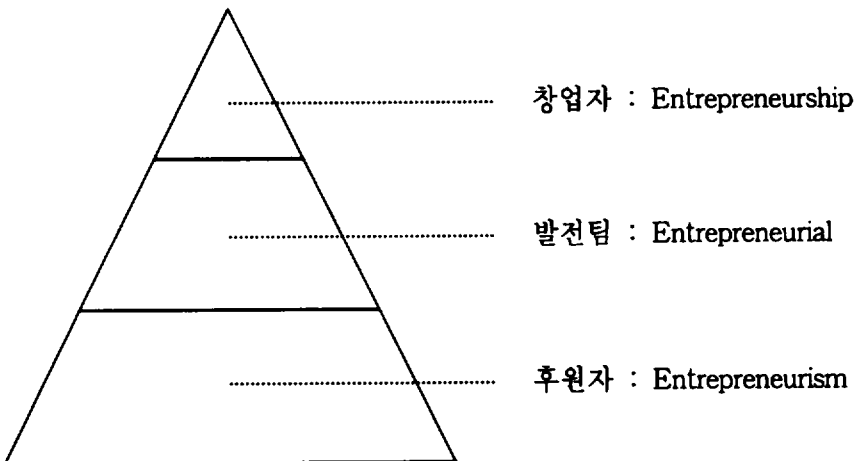
11) 이는 '사회' 교과 내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신지도요강에서 '사회'는 3년생부터 시작되고 ('초등학교 사회 3·4년, 상하', '초등학교 사회 5·6년, 상하'), 더욱이 최근에는 수업시간 수가 감소하고 있다 (문부성, 2001 참조).

Ⅵ. 경제교육과 기업가활동

이상 영국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프로그램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구미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제교육프로그램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학습·개발되어지고 있다(Davies, 2002 : CEI, 2001 : 기업가교육센터, 2000 등을 참조). 우선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제교육이 구미에서 널리 실시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경제교육과 기업가활동과의 관계를 간단히 고찰하여 결론에 가름하고자 한다. 본래 경제교육도 기업가교육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관계를 생각하는 데는 Kourilsky(1995)라고 하는 '기업가활동 실시·지원피라미드'(Entrepreneur Implementation and Support Pyramid)의 프레임 워크(frame work)가 가장 효율적이다. 기업가형 사회는 창업자(initiator), 발전 팀(development team), 후원자(constituency) 등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상단은 말할 필요도 없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수행하는 혁신자로서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위치한다. 기업가는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지원자가 발전 팀이 된다. 그것은 창업자 자신이 아니더라도 창업자에게 가장 강한 친근

〈그림 2〉 기업가활동의 실시·지원피라미드



자료 : Kourilsky, M.L., 1995, "Entrepreneurship Education : Opportunity in Search of Curriculum", Kau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p.12.

감을 갖고, 창업자 비전에 위임(commit)함으로써 매력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발전 팀의 어프로치·행동은 기업가적(entrepreneurial) 행동이 되는 것이다.

피라미드의 하단에 위치한 최하층에 후원자가 있다. 이 층은 기업가활동과 기업가적 행동의 확대를 평가하고, 그들이 촉진한 정책을 지지한다. 이 위치(stance)는 'Entrepreneurism' 라고 부르고 있다. 창업자 수준도 발전 팀 수준과 함께 후원자 수준에 의해 지탱되어지고 있다. 이들 3자의 관계가 원활히 기능하여 기업가형 사회를 실현한다. 이 실현을 위해 각각의 수준에 대응할 적절한 경제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가 대상으로 한 초등교육 단계(그리고 중등교육 단계)의 경제교육은 우선, 피라미드 후원자의 단계에서 사회적 공헌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경제가 어떻게 기능하는 가를 널리 이해시킴으로써 인해 후원자 층의 확대로 이어져 간다. 본래 기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인해 직접 장래의 기업가활동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른다. 결국 후원자 층의 확대는 기업가활동을 촉진하는 문화적 배경을 양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유효성을 고려한다면 향후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 교재개발, 교사의 기술개발 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대학 측에서 본다면 대학의 새로운 사명(mission)이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교육의 도입·학습을 가능케 하는 제도개혁도 똑같이 중요함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다각적인 배려를 하지 않고 실패한 정책사례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셀 수가 없을 정도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위에서 지적한 점을 다시 음미하고자 한다. 즉 영국에서는 사회 변화(기업가형 사회)와 교육개혁·학교개혁(경제교육)이 연동하여 전개되고, 또한 경직적·질서지향적이라 간주되어지는 개혁을 가능케 하는 사회의 유연성·제도의 유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교육개혁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을 포함한 많은 교육관계자가 영국의 교육개혁에 주목하기를 바랄 뿐이다.

참 고 문 헌

- Centre for Education and Industry(CEI), University of Warwick, 2001, *Independent Research into Learning for 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DTI.
- Davis, H., 2002, *A Review of Enterprise and the Economy in Education*, DTI.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DTI), UK, 1998, *The 1998 Competitiveness White Paper*.
- Fraser Institute, 2001,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 2001 Annual Report*.
- 羽瀨強一、2001、「「トライやる・ウィーク」で子供が変わる」、明治図書。
- 飯尾 要、1985、「日本形競争社會の構図」、日本評論社。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 2001,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
- 經濟教育研究會編、1997、「新しい經濟教育のすすめ」、清水書院。
- 起業家教育センター、2001、「初等・中等教育段階における起業家精神函養教材とその教授法に関する調査」。
- Kourilsky, M.L., 1995, "Entrepreneurship Education : Opportunity in Search of Curriculum", Kau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 Kourilsky, M.L. and S.R. Carlson, 1996, *Mini-Society and YESS! Learning Theory in Action*, Kau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 Merton Education Business Partnership(MEBP), 2001, *Annual Report 2001*.
- 文部省、1999、「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 社會編」、日本文教出版。
- OECD/CERI, 1998, *Making the Curriculum Work* (嶺井正也監譯 「カリキュラム改革と教員の職能成長—教育のアカウントビリテイのために」、アドバンテージサーバー、2001年)。
- 大江建・杉山千佳、1999、「「起業家教育」で子供が変わる!」、日本經濟新聞社。
- Reynolds, P.D., M. Hay et al., 1999,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1999 Executive Report(GEM, 1999)*, Babson College, London Business School, Kau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_____, 2000,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2000 Executive Report(GEM, 2000)*, Babson College, London Business School, Kau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_____, 2001,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2001 Executive Report(GEM, 2001)*, Babson College, London Business School, Kau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_____, 2000,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2000 UK Executive Report(GEM UK, 2000)*, London Business School.

谷川俊太郎ほか、1997、『こんな教科書あり?』、岩波書店。

竹内靖雄、1978、『競争はなぜ必要か』(日経新書)、日本経済新聞社。

Merton Education Business Partnership(MEBP)から提供された資料。